

4/5/2020

설교제목: 의롭게 됨, 화목하게 됨

성경본문: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ans 5:1) ESV]

1.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7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을 말합니다. 보통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밝은색 옷을 입지 않고, 고기가 들어간 기름진 음식을 가능한 피하여 먹으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미디어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마음교회에서는 2월 26일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사순절 기간에 (봄철신앙성장 캠페인)을 하며 각자의 신앙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23일부터 4/3일까지는 매일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8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1시간 기도회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간단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할터인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는 겸손하심 (눅 9:9)을 의미합니다. 높은 왕과 재상들은 큰 말을 탑니다. 볼품 없는 나귀를 타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월요일**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막 11:17) 하시며 성전의 의미를 다시금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을 기념하여 올 해 사순절 기간에 본당 복도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 페인트를 칠하였고 지난 2주간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과부 여인이 드린 두 렵돈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돈 자체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성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드리는 예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큰 소리로 기도하는 태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믿음으로 정성껏 온 마음과 뜻,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역시 소중한 시간, 소중한 건강,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며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시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온 세상 죄를 혼자 짊어 지시고, 어린양으로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눅 23:34), (2)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3)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 19:26-27),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 27:46),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6) 다 이루었다. (요 19:30), (7)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 경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6시간을 양 손과 발에 박혀 있는 못에 온 몸의 무게를 걸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하셨던 것입니다.

토요일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고, 주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을 오늘 본 말씀 바로 앞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who was delivered up for our trespasses and raised for our justification. (Romans 4:25) ESV]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ans 5:1) ESV]

2. 우리가 범죄함? 내가 언제 무슨 범죄를 행했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παράπτωμα-파랍토마)인데 이는 '의도적으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였는가? 하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Romans 5:12) ESV]

여기서 핵심질문은 <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처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은 존재로 창조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죄의 악함과 타락 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 조차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H (하나님) 나라의 'A (아담)이라는 장수가 영적 전투에서 패하여 S (사단)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어 나쁜 짓을 하며 살아야 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PPT로 보여 주시면 좀 더 상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아담)이라는 장수는 그 잡혀간 나라, 즉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S (사단) 나라에 속한 포로 즉, (죄의 종 노릇하는)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그림을 PPT로 보여 주시면 좀 더 상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A 장수의 후손들은 즉, 저와 여러분은 아무 것을 안했어도 자연적으로 죄의 종이라는 신분이 전가 된 것뿐만 아니라 농 신분으로서 더러운 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살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PPT로 보여 주시면 좀 더 상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이번에는 H (하나님) 나라의 J (예수님)라는 장수가 S (사단) 나라와 다시 영적전투를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된 아담의 후손 모두를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가서 자유하고 싶은 자는 나를 따라 오너라."

의외로 많은 수의 아담의 후손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그냥 머물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장수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서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 사단의 나라가 몸에 익어서 살기 편해져 굳이 뭐 옮겨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며 H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예수라는 장수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PPT로 보여 주시면 좀 더 상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 즉 아주 소수의 아담의 후손만이 예수 장수의 말을 믿어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 장수는 그 사람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들은 본인들이 아무 것을 안했고 그냥 예수라는 장수를 믿고 따라 나섰더니 죄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만든어 낸 이 이야기는 로마서 5장 18-19절을 읽고 만든어 낸 것입니다. 그 진짜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Therefore, as one trespass led to condemnation for all men, so one act of righteousness leads to justification and life for all men. For as by the one man's disobedience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by the one man's obedience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Romans 5:18-19) ESV]

3.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ans 5:1) ESV]

오늘 로마서 5장 2절 이하를 읽어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열거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Romans 5:2b) ESV]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품고 받은 구원을 즐거워 하며 혹은 자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하루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어려운 사명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 보면 거의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통 당하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제자, 커뮤니티를 섬기는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문에 나타나는 간구함은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써서 이같은 기도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바와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삶 두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Not only that, but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knowing that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and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Romans 5:3-4) ESV]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실제적인 삶의 두번째는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나 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나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면 즐거움이 더욱 커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치 번개치고 무섭게 바람부는 밤에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안 무서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오히려 그 과정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의롭게 된 삶의 여정으로 들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하는 삶이 되고,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 되는데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해 깊이 들어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새벽기도회가 5:30분과 6:30분 이렇게 두번을 드립니다. 이유는 1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오실 분은 꼭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을 기념하는 주일에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에 드리게 되는데 오시는 분들은 미리 정목사님께 꼭 알려 주셔서 법을 지키면서도 은혜로운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